

“함께 걷는다”라는 중요한 과제의 이 시점에서, 교회일치와 비그리스도교 위원회 (Ecumenical- Interfaith Committee)의 새 회원이 된 패트릭 마틴 (Patrick Martin)을 소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일치와 비그리스도교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일해왔던 동료이자 절친한 마이크 카슨 (Mike Carsten) 이 사직하게 되어서, 저는 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혔었습니다.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뛰어들어서 봉사할 봉사자를 식별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안에서는 교회일치와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뛰어난 의식과 인식을 촉진하며 세상 속에서는 교회일치와 비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발전시키려는 갈망을 가진 자로서, 가톨릭에 확고한 신앙을 갖고 다른 그리스도 종교들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봉사자로 패트릭 (Patrick)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패트릭이 본인 자신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일치란 단어를 알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60년대 남부에서 가톨릭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곳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한 신부님께서 선교차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여 강론하셨던 그 주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통계 숫자를 줄줄이 나열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0% 가 가톨릭이고, 한국은 6% 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고장인 조지아 (Georgia)는 2%가 가톨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조지아주 모든지역의 오직 2%만이 가톨릭 교우라고?

왜 우리 가족이 애틀랜타에 살면서 30 분 동안 운전하여 교회에 가야 했는지, Haygood Memorial 감리교회에서 후원하는 보이스카우트 84 단의 단원중 나만이 유일한 가톨릭 교우였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개신교 형제자매들과 아주 편하게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재속프란치스코회원으로 성 프란치스코가 5 번째 십자군전쟁이 한창일 때 이집트의 술탄 (Malik al-Kamil) 을 만나 모슬렘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며, 형제적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이슬람 회교도와 대화를 했던 프란치스코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프란치스코들은 종교적인 분열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친교의 손을 내밀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그리스도교들과도 존경심을 갖고 계속해서 관계를 갖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가톨릭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리치고 있는 중요한 두 문서를 인용합니다.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 (*Lumen Gentium*)” 에서 교회의 비 가톨릭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 교회와 비 가톨릭 그리스도인 [교회 헌장]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녔지만 완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거나 베드로의 후계자 아래에서 친교의 일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도 교회는 자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예롭게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진실한 종교적 열정을 보여 주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고, 세례의 인호를 받아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다른 성사들까지도 자기 교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하고 받는다. 그들 가운데에 많은 이들은 주교직도 향유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며 천주의 동정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존중한다. 기도와 다른 영적 은혜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의 어떤 결합까지도 진실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 안에서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그 힘을 복돋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인 양 때 안에서 한 목자 밑에 평화롭게 일치되게 하려는 열망과 활동을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서 일으켜 주신다. 이 일치를 이루고자 어머니인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망하고 행동하며,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자녀들에게 정화와 쇄신을 권고한다.

그리고,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Unitatis Redintegratio*)에서 역시 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형제들의 관계 [일치교령] 하느님의 이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분열이 생겨났으며, 사도는 이 분열을 단죄하여야 한다고 엄중히 책망하였다. 후세기에는 더 많은 불화가 생겨, 적지 않은 공동체들이 가톨릭 교회의 완전한 일치에서 갈라졌으며, 어떤 때에는 양쪽 사람들의 잘못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공동체들 안에서 태어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분열 죄로 비난받을 수는 없으며,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톨릭 교회와 친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에는 교리나 때로는 규율 문제에서 또는 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완전한 교회 일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때로는 중대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지만, 일치 운동은 바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당연히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한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가톨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개신교의 교파에서도 서약한 프란치스코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일치와 비 그리스도교 위원회의 비전과 목적과 같이 재속프란치스코회는 계속해서 정규 3 회의 프란치스코 형제자매들, 비 가톨릭 그리스도인 프란치스코회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란치스코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 17장 21) 라고 기도하셨듯이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프란치스코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매 Mulqueen 과 형제 Patrick Martin 드립니다.